

# 경기 불확실성에...전남도, 목표 고용률 또 하향 조정

### 12개 시·군 2년 연속 낮은 목표치 도내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상황 상용일자리 줄고 고용 질 악화 우려

올해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2년 연속으로 올해 목표 고용률을 지난해 실적보다 낮게 잡았다.

지난해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도 경기 불확실성과 고용 둔화 전망 등을 반영해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전남도는 최근 일자리 12만 3070개 창출, 고용률 70.5%, 취업자 수 99만5000명 달성을 목표로 14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 공시했다. 도내 22개 시·군 역시 올해 일자리 목표와 추진 계획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제시했다.

전남도는 올해 일자리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낮게 잡았다.

우선 올해 목표 고용률(15~64세)은 70.5%로 지난해 달성한 고용률(70.85%)보다 0.25%포인트 낮게 전망했고, 전체 취업자 수 역시 전년 100만4000명보다 0.9% 적은 99만5000명을 목표로 잡았다. 실질적인 경제 활동인

구인 15~64세의 목표 취업자수 역시 전년도 실적인 75만7000명보다 적은 75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올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도 전년(223개)보다 줄어든 205개다. 전남도는 임시직 9만3930개, 상용직 2만9140개 등 12만 3080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그러나 전년도 일자리 목표와 비교해 상용직은 줄어든(3만 810개→2만 9140개) 반면, 임시직은 늘어났다(9만 3073명→9만3930개)는 점에서 고용의 질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는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잡은 것과 관련해 경기 불확실성과 도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내 타 시·군 상황도 비슷하다. 22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한 곳은 12곳이었다.

특히 도내 5개 시가 모두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 목포의 경우 지난해 고용률(15~64세) 64.4% 달성했지만, 올해 목표는 63.7%라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1만 2000개의 취업자를 만들었지만 올해는 10만8300명을 목표로 하고있다.

여주시도 올해 고용률 목표를 69.5%로 전년(71.2%) 실적보다 낮게 잡았고, 취업자수 목표로 전년 실적(11만8800명)보다 감소(11만7600명)

했다. 순천과 광양시, 나주시도 각각 전년 실적보다 1.1%포인트, 1.8%포인트, 0.3%포인트 낮은 67.8%, 69.8%, 69%를 제시했다. 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역시 대부분이 노인, 중장년 위주의 단기 일자리인 점도 비슷하다.

전남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12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000명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지역 산업의 '기동'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당장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제조업 업황은 전년 같은 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또한 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상용근로 형태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전남도와 각 시·군 주도해 창출하기로 한 일자리 대부분 또한 노인층 대상 기간제 일자리라는 점에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옴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정착하는 전남'을 슬로건으로 지역 내 우수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민선 8기 종합계획과 일자리 대책을 연계해 시너지를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및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연합뉴스

## 윤석열, 오늘 '내란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

### 피고인석 앉은尹 촬영 불가, 이명박·박근혜 댄 허가... '특혜' 지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진행됐다.

법원은 역대 대통령 형사재판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심리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20일 공판준비 기일이 진행됐지만, 이날은 첫 정식 재판으로 절차대로라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이름·생년월일·직업·본적·거주지 확인 등)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인정신문에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이후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인정 여

부를 밝힌다.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파면 이후 7일 만인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 모습을 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법원은 전두환·노태우씨 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형사법정에 설 당시 당시 재판부는 역사의 기록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모두 촬영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전 씨의 경우 광주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재판 당시 법원은 촬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석방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송원유치원 32년만에 문 닫았다...광주 5년간 39곳 폐원

### 원생 수 감소 원인

광주지역 대표적인 사립유치원이었던 송원대부설 송원유치원이 최근 문을 닫았다.

1983년 2학급 80명으로 시작한 송원유치원은 송원대의 유아교육학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립유치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신생아 감소 영향으로 신규 원아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원아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특히 기존 주택지구에서 도심외곽 현 부지로 유치원을 이전하면서 유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은

학부모들의 이탈까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원아가 겨우 17명에 그쳐 결국 올해 초 폐원을 신청했고, 이달 9일 광주시교육청이 폐원을 인가했다.

송원유치원 관계자는 "유아교육학과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유치원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됐다"며 "기존 원아들은 폐원 일정에 따라 이미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치원 수는 273곳으로, 2019년 319곳과 비교하면 39곳이나 폐원했다.

원아 모집 기준을 3년 이상 충족하지 못해 장

기 휴원하게 된 유치원은 폐원하는데 지난해 광주 중앙초·월곡초·지평초·동운초·조봉초 등 5곳의 공립 병설유치원이 폐원했다.

유치원 잇달 폐원은 원생 수 감소가 주 원인이다.

광주지역 유치원 원생 수는 2019년 2만3252명에서 2023년 1만9911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만8924명으로 감소했다.

원생 감소로 공립 유치원 휴원도 잇따라 학급 편성 최소 인원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16개 공립유치원이 올해 휴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의대생 '복학 후 투쟁'...의대교육 다시 공전 우려

이달 초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학했지만, 일부가 집단 수업거부에서 나서면서 의대교육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경희대 의대생과 아주대 신입생은 수업거부 방식을 통해 '등록(복학) 후 투쟁'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 의대 학생대표는 지난 9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아직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답변하겠다는 약속조차 듣지 못했다"며 "투쟁을 지속한다"

고 밝혔다.

경희대 의대 학생회는 최근 투쟁지속의사 투표를 거쳐 투쟁 방향을 '수강신청 보류'에서 '수업거부'로 전환했다. 아주대 25학번은 9일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수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움직임에 학교 측은 학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도 작년과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지난 10일 본과 3·4학년

11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고, 연세대도 오는 15일 유급예정통보를 받은 본과 4학년생 일부를 최종 유급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 등이 이번 주 중 수업 불참자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5-90호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구자나 관리자가 있는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동일 지번 내에서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가주

공사업	분묘소재지	분묘가주	분묘번호	위체(KSTA)	비고
	총계	19			
	소계	8			
신안 압해-해남 화원(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창리 391-19	1	무연 29	본선 12+340(F)	당초 391-13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창리 391-19	1	무연 30	본선 12+340(F)	당초 391-13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창리 391-19	1	무연 31	본선 12+340(F)	당초 391-13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창리 391-19	1	무연 32	본선 12+340(F)	당초 391-13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장림리 신27-4	1	무연 33	본선 11+980(F)	당초 391-13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장림리 신27-4	1	무연 34	본선 11+980(F)	당초 391-13
	소계	11			
곡성 석곡C-결면(2공구) 도로건설공사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과소리 산106-1	1	무연13	4+430	당초 산106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과소리 산106-1	1	무연14	4+440	당초 산106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과소리 산106-1	1	무연15	4+420	당초 산106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과소리 산106-1	1	무연16	4+410	당초 산106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과소리 산106-1	1	무연17	4+400	당초 산106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과소리 산106-1	1	무연18	4+400	당초 산106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현동리 산139-6	1	무연19	4+450	당초 산139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현동리 산139-6	1	무연20	4+450	당초 산139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현동리 산139-6	1	무연21	4+440	당초 산139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현동리 산139-6	1	무연22	4+440	당초 산139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현동리 산139-6	1	무연23	4+460	당초 산139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현동리 산139-6	1	무연24	4+460	당초 산139

2. 개장사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공사(신안 압해-해남 화원 2공구, 곡성 석곡C-결면 2공구)에 면인

3. 개장 후 안치장소: 남광암

4. 개장 후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2025. 2. 26. ~ 2025. 05. 27.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장방법: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 공고기간 중 연구자가 나타나 경우에는 연구자가 개장

7. 신고처  
· 신안 압해-화원(2공구) 도로건설공사  
· 현장사무소(061-246-1330), 우리 청 보성로(063-850-9161)  
· 곡성 석곡C-결면(2공구) 도로건설공사  
· 현장사무소(061-884-7373), 우리 청 보성로(063-850-9177)

202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본 법원은 2025년 2월 14일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5년 3월 5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니 본 법원에 채권이 있는 분은 2025년 5월 30일까지 그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14일

신광축산농협조합법인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덕일길 287  
청산인 이귀남

---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법원은 2025년 4월 7일 서면결의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4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14일

주식회사 탐에스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22 (오산동)  
청산인 허창수

### 주식법으로 인한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04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4,900,000,000원을 금 98,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구주 50주를 신주 1주로 병합하여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자본금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주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 및 주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주식회사 허서리인맥트광주영동분회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11(우산동)  
대표이사 여운한

---

73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

북구	· 통 266-1920	· 문 266-1960
	· 통 525-3761	· 신 222-8171
	· 통 571-7658	· 오 266-7001
	· 통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통 673-6936	· 통 622-9054
	· 통 225-8001	· 통 222-9054
	· 통 222-8171	
남구	· 통 673-6936	· 북 651-1833
	· 통 673-6936	· 송 675-6605
	· 통 671-7276	
서구	· 통 382-5788	· 삼 372-2352
	· 통 369-1625	· 문 376-7153
	· 통 376-6511	· 통 603-0311
	· 통 369-1625	
광산구	· 통 952-1687	· 월 959-1920
	· 통 973-2900	· 하 955-0451
	· 통 944-0444	